

2012년 11월 2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: 신산업표준과 윤종구 과장, 남택주 연구관(02-509-7297)

한국, 「전자파장해분야」 국제표준 주도

- '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(CISPR)' H분과 기술위원회 간사국 수임-

- 태국(12.11.5~11.16, 방콕)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(IEC CISPR)에서 CISPR 내의 핵심 분과인 H분과 기술위원회(전파서비스 보호를 위한 한계값) 국제간사국을 수임하게 되었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서광현)은 밝힘

* CISPR :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

- CISPR H분과 간사국 후보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원한 가운데, 중국의 대대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와 기술적 공헌을 인정받아 간사국을 수임하게 되었음

* 독일, 일본, 미국 등 총 20개국 중 과반수 11표를 획득(중국 7표)

- 이에, 기술표준원에서는 CISPR H분과 국제간사로 장태현 수석연구원(산업기술시험원 전자파기술센터장)으로 지명하였음

- 'CISPR H분과 기술위원회'는 IT기기,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등 모든 전자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의 허용 기준치를 결정하는 핵심 분과 기술위원회이며, IEC 내의 전자파장해를 규제하고자 하는 기술위원회(TC/SC)에서는 이를 적용하여야 함

- 전자파장해(또는 전기자기적합성, EMC)가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표준으로 설정된 전자파 허용 한계값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

- CISPR는 1개의 운영위원회(Steering committee)와 6개의 분과 기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, 우리나라가 H분과 간사국을 수임함으로써 관련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인정받고 국제표준 선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

- 우리나라는 수년간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ISO, IEC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- CISPR 국제표준화회의에도 매년 30여명의 전문가들이 꾸준히 참가하여 왔으며, CISPR 내에서는 독일, 일본 다음으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, 매년 표준 제안 및 기술 기고문을 발표하며 큰 기여를 해 왔음

- 특히, 2003년 CISPR 제주총회, 2011년 CISPR 서울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음

- 그동안 독일, 일본 등 선진국에서 주도해 오던 전자파장해 관련 표준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, 수출 주도하는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

한국산업기술시험원 (장태현 센터장)

[참고]

IEC CISPR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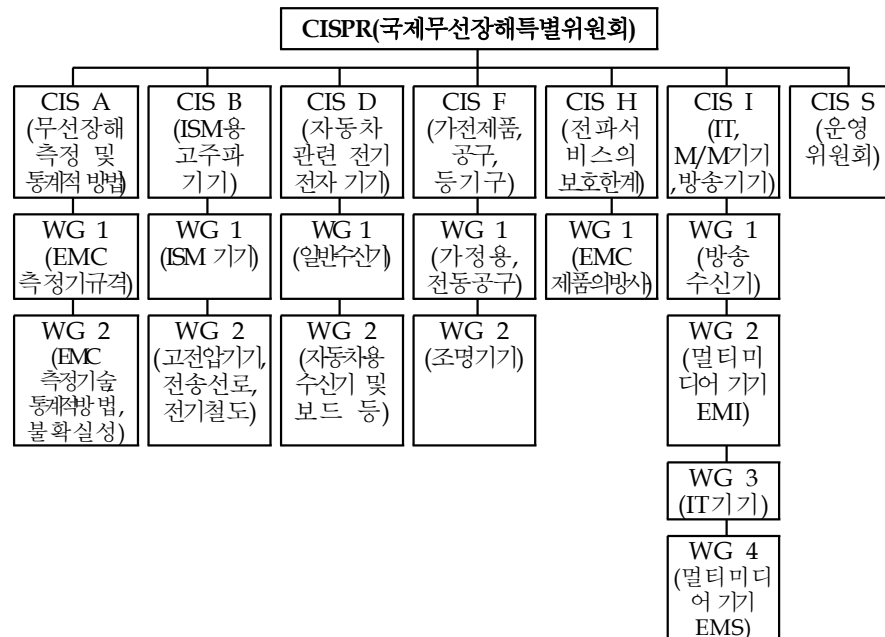
□ 명 칭 :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
(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)

□ 범 위

- 전기·전자제품, 정보기술기기, 수신기, 전력망 등에서 발생하는 무선 방해파 관련 전자기적합성(EMC) 국제표준화 추진

□ 조직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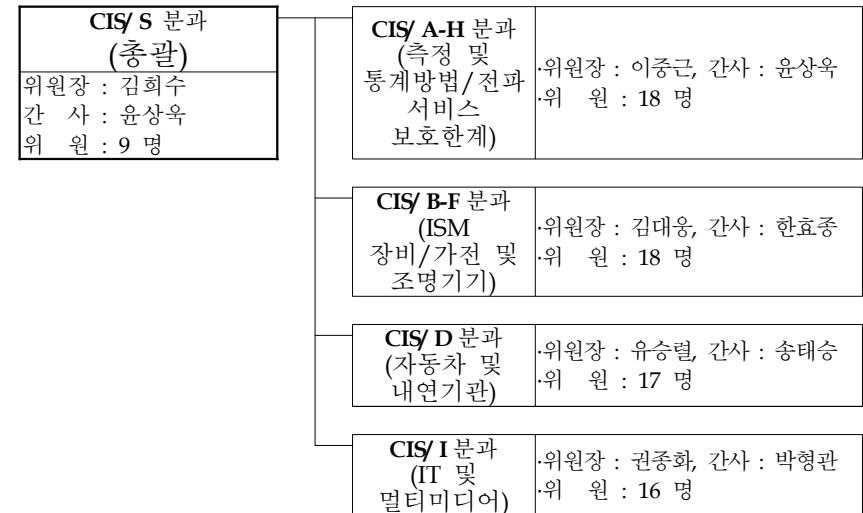
- 의장 : Mr. Donald N. Heirman (영국)
- 간사 : Mr. Stephen Colclough (독일)
- 회원국 : 총 40개국
 - 정회원국(P 멤버) : 한국, 미국, 일본, 독일 등 29개국
 - 준회원국(O 멤버) : 그리스, 브라질, 말레이시아 등 11개국



□ 관련 표준수 : IEC 40종, KS 40종

□ 우리나라 활동현황

- 전문위원회 운영(5개 세부분과, 78명 전문가)



- 국제표준 제안·기술기고문 발표 : 37건 ('08~'11)

○ 임원 수입

- (WG Convenor) CIS/B/WG2 안희성('05~)&CIS/S/WG1(스마트그리드) 안희성('11~), CIS/H/WG4 이중근('04~'07)
- (Project Leader) 장태현 센터장